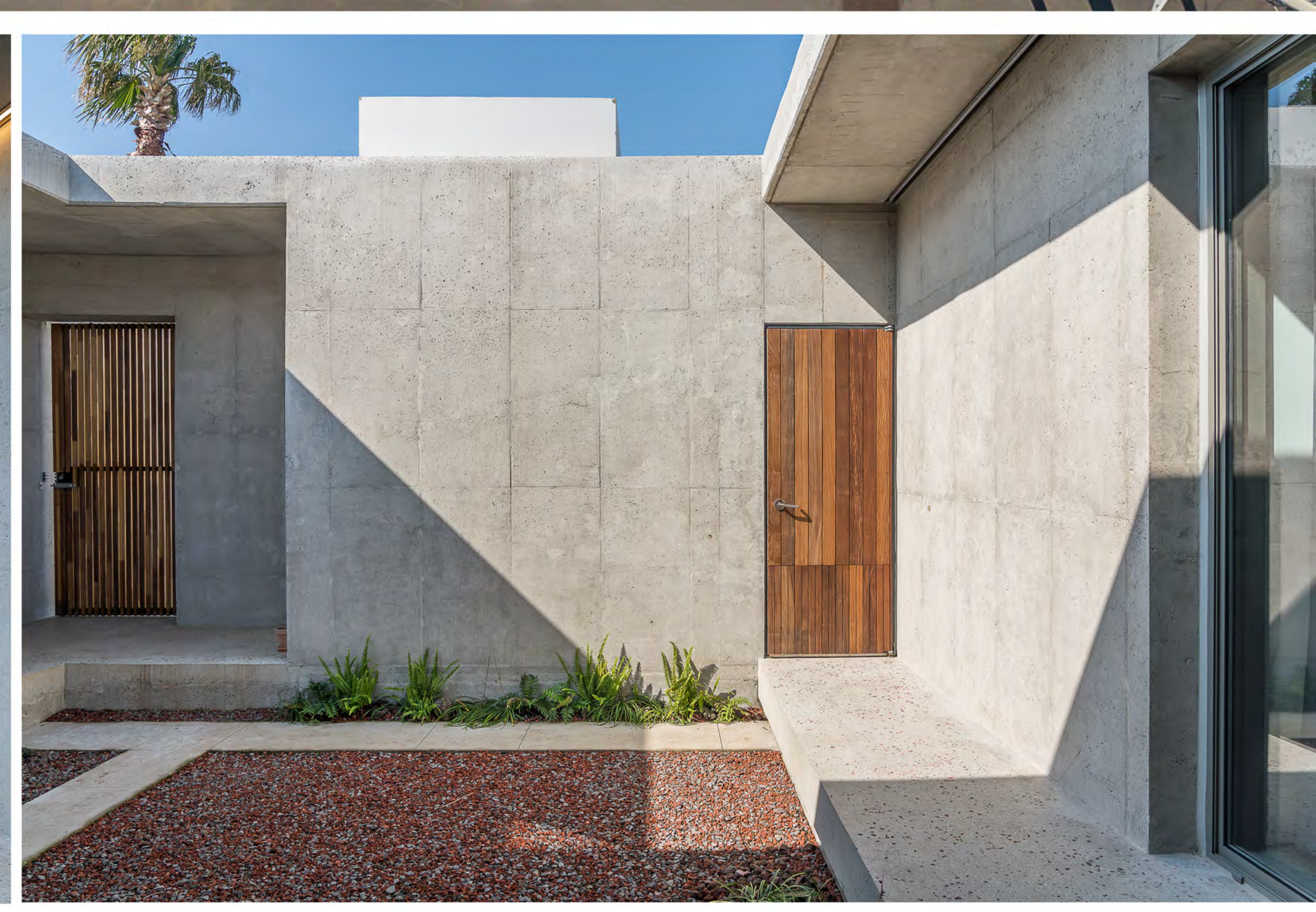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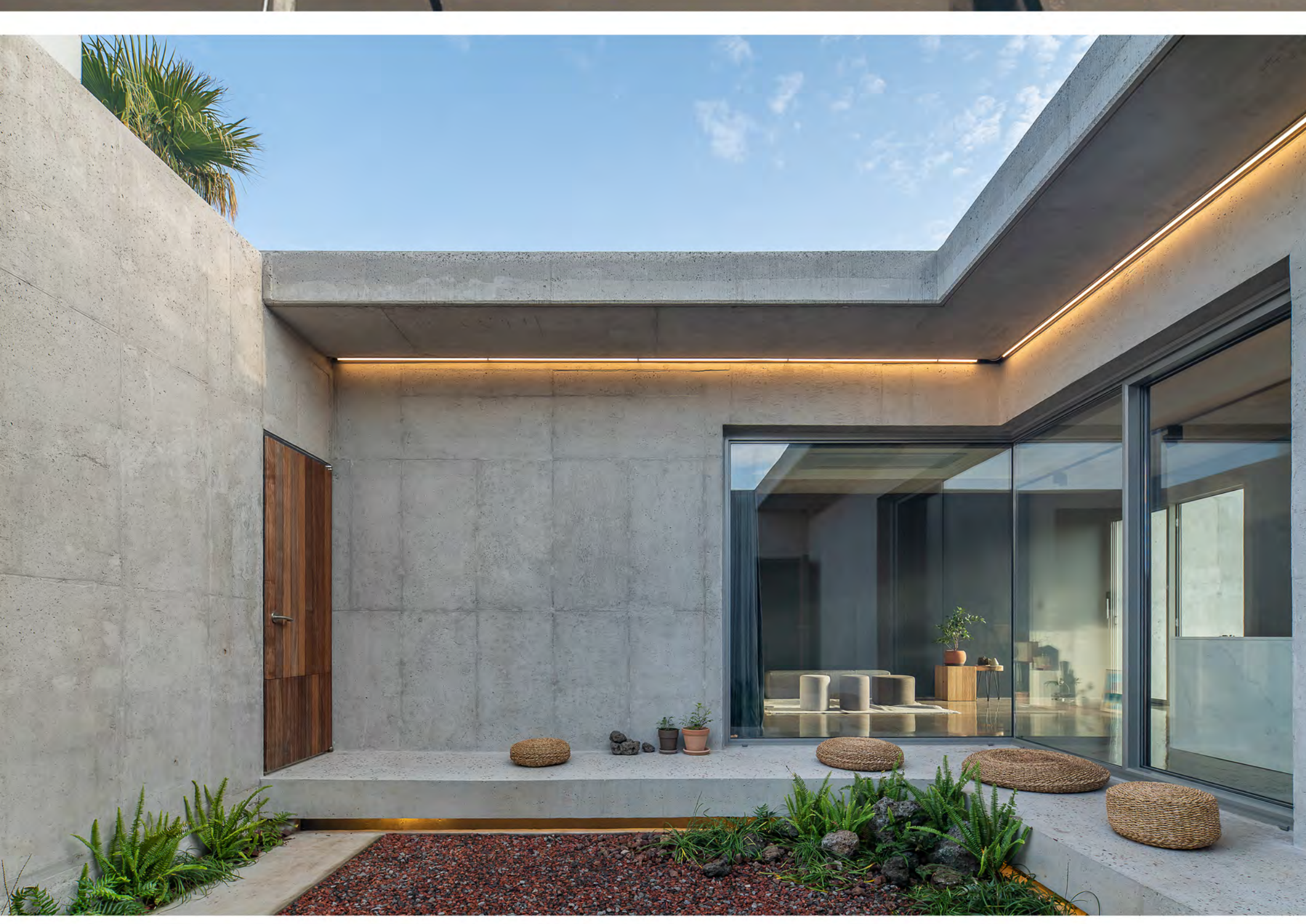




**건축개요**

프로젝트 : 나지요네 (Nasillonner)  
 대지위치 : 제주시 환경면 청송라 1092-4번지  
 대지면적 : 871㎡  
 건축면적 : 84.52㎡  
 면적률 : 84.52㎡  
 규모 : 지상 1층  
 건폐율 : 9.7%  
 용적률 : 9.7%  
 용도 : 단독주택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  
 내부마감재 : 총이색 폴이싱, 스크래치 미장 위 도장  
 주차대수 : 1대



**나지요네 Nasillo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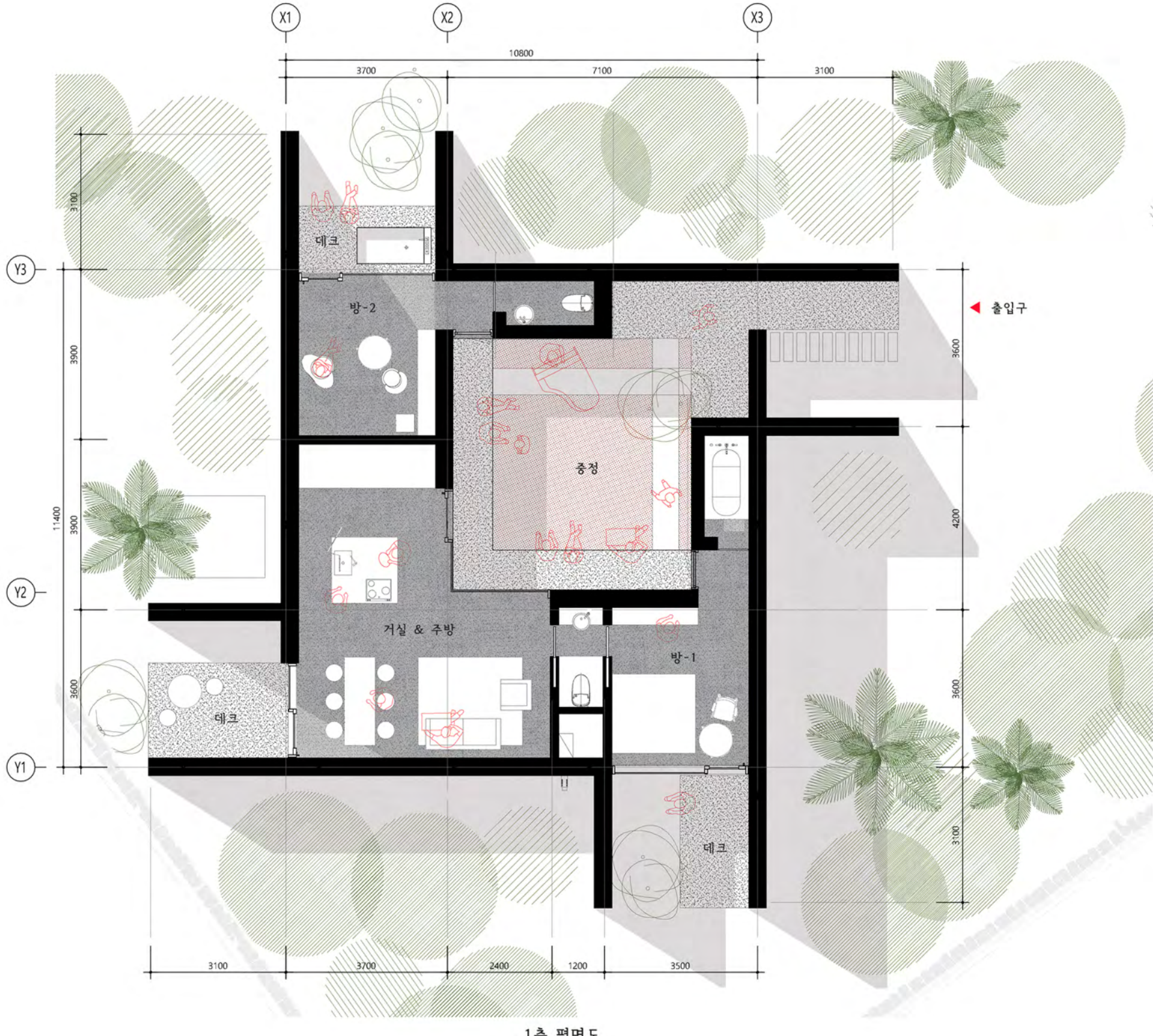
대지  
 제주 청수리 언덕 아래로 귤밭(Gojawal)이 펼쳐지는 대지이다. 그 넓어 상방산이 그리고 고개를 통해 한라산, 오름(Oreum)들, 건축이 놓인 이 땅은 그저 환경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다. 새로운 공간의 삶은 아름다운 비 대지로부터 시작된다.  
 대지가 가진 환경만으로 건축은 단순하게 규정되어야 했다. 제주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섬이며 장인적인 자연의 삶이다. 제주를 돌며보며 어떤 형태든 자연만 못했고 어떤 재료든 자연에 나약했다. 이곳에서의 건축은 절제해야 한다.

소박한 삶  
 끝없는 신중의 초기상안(草案)집을 공유는 소박한 삶이다. 작은 면적 속 2인의 방과 거실 공간은 단순한 일상을 위한 것이며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 시키고자 했다. 공간의 구조와 형태는 단순한 모형을 바탕으로 공간용 구성을 구상하고 비대칭 속에서 균형을 통해 편안함을 찾고자 한다. 역사의 구조는 내부공간의 질감을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보는 동화적인 벽체와 함께 형태의 일부가 된다. 공간은 (비워진)외부공간과 (채워진)내부공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비워진)중정을 시작으로 (채워진)개인적 공간에 이르고 각각의 (채워진)개인적 외부공간과 만난다. 각각의 개인적 공간은 제주도의 상징적 요소(상방산, 한라산, 못자발, 돌담)들과 맞추어진다.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외부공간들은 사색하고 들으며는 삶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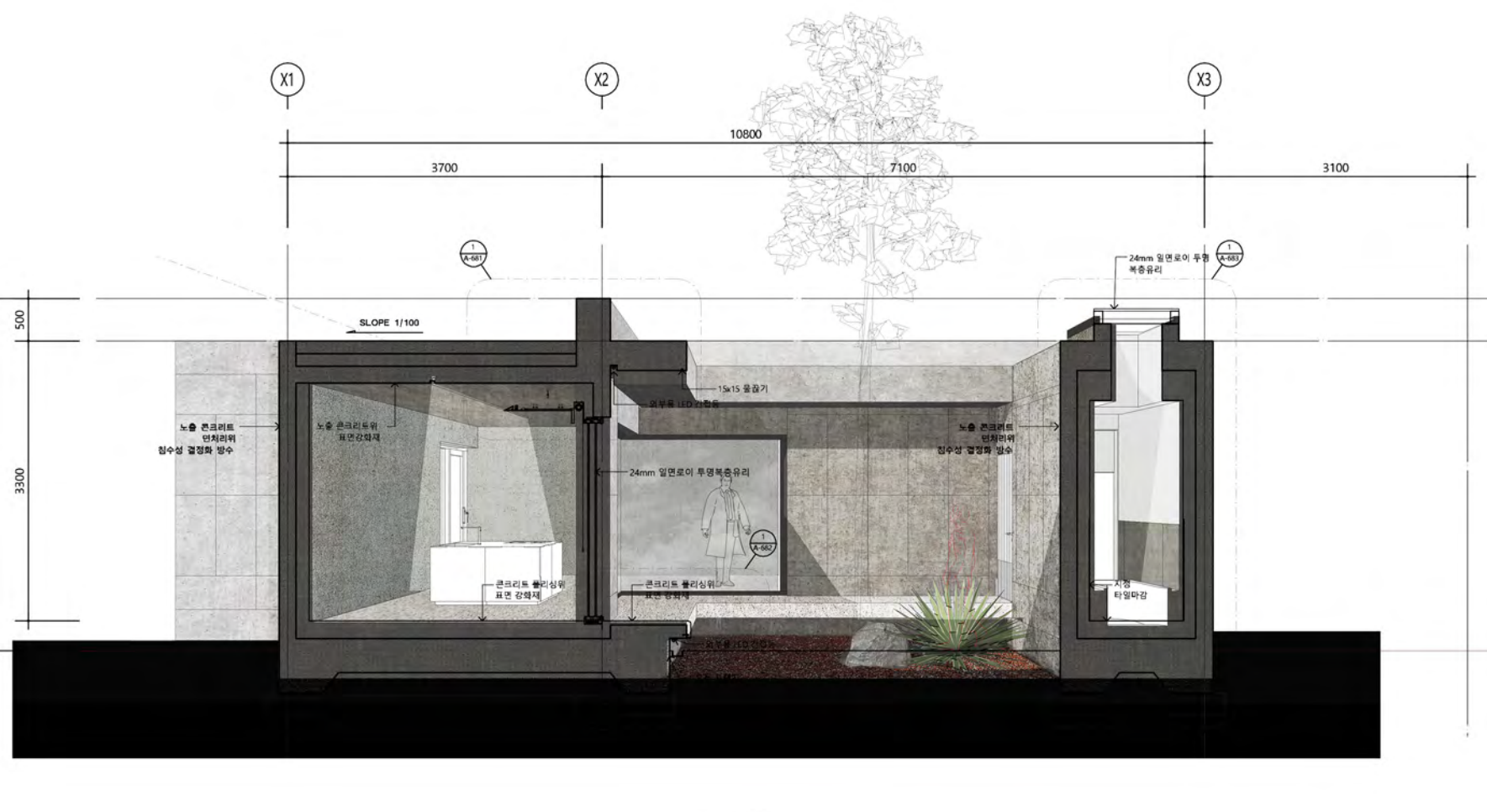
불은 중정과 빛마루  
 (비워진)중정은 모든 공간의 시작이며 주변(환경)을 배제한 개인적 외부이다. 감지 받은 콘크리트 벽을 따라 단락을 지나면 불온(불이) 중정에 들어간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건축은 거친 외벽 및 콘크리트 덩어리로 주변 자연의 배경이 되어 시선을 주시 없게끔 하였다. 그저 자연의 요소가 더 절제되고 들어간다. 내부 벽체는 자연의 미감을 최대한 담으려 하였다. 최대한으로 평면적 채우기의 불온은 솜이끼는 장미 부처의 같이 마감을 채우고 빛마루와 내부벽체의 일부가 되어 들어온다. 벽의 콘크리트와 함께 섞여 타일처럼 들어간 솜이끼의 불온 단편을 들어낸다.  
 이러한 벽체는 목재 마루와 데코리얼(Deco tile)과 같은 편안함을 안겨주었으나 공간 여기저기 채우려는 채우려는 장식성을 그리고 재료를 느끼길 꺼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은 최소한의 재료로 구성하였고 가능한 작 공정을 아니라는 방향으로 마감되었다. 줄고 나뉘는 채우려는 환경 속에서 재료의 그 울림 자체로서 자연스럽게 들어 가길 바랐다.

거친 벽체, 돌리실 바닥  
 외부로 길게 받은 벽체는 각각의 독립된 공간의 영역으로 돌리 들어간다. 그러한 벽체를 통해 개인적 (채워진)내부공간과 (비워진)외부공간을 이룬다. 외부공간을 연결된 벽체 그리고 그 벽을 타고 흐르는 빛은 내부의 벽체로 들어간다. 내부 벽체는 자연의 미감을 최대한 담으려 하였다. 최대한으로 평면적 채우기의 불온은 솜이끼는 장미 부처의 같이 마감을 채우고 빛마루와 내부벽체의 일부가 되어 들어온다. 벽의 콘크리트와 함께 섞여 타일처럼 들어간 솜이끼의 불온 단편을 들어낸다.  
 이러한 벽체는 목재 마루와 데코리얼(Deco tile)과 같은 편안함을 안겨주었으나 공간 여기저기 채우려는 채우려는 장식성을 그리고 재료를 느끼길 꺼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은 최소한의 재료로 구성하였고 가능한 작 공정을 아니라는 방향으로 마감되었다. 줄고 나뉘는 채우려는 환경 속에서 재료의 그 울림 자체로서 자연스럽게 들어 가길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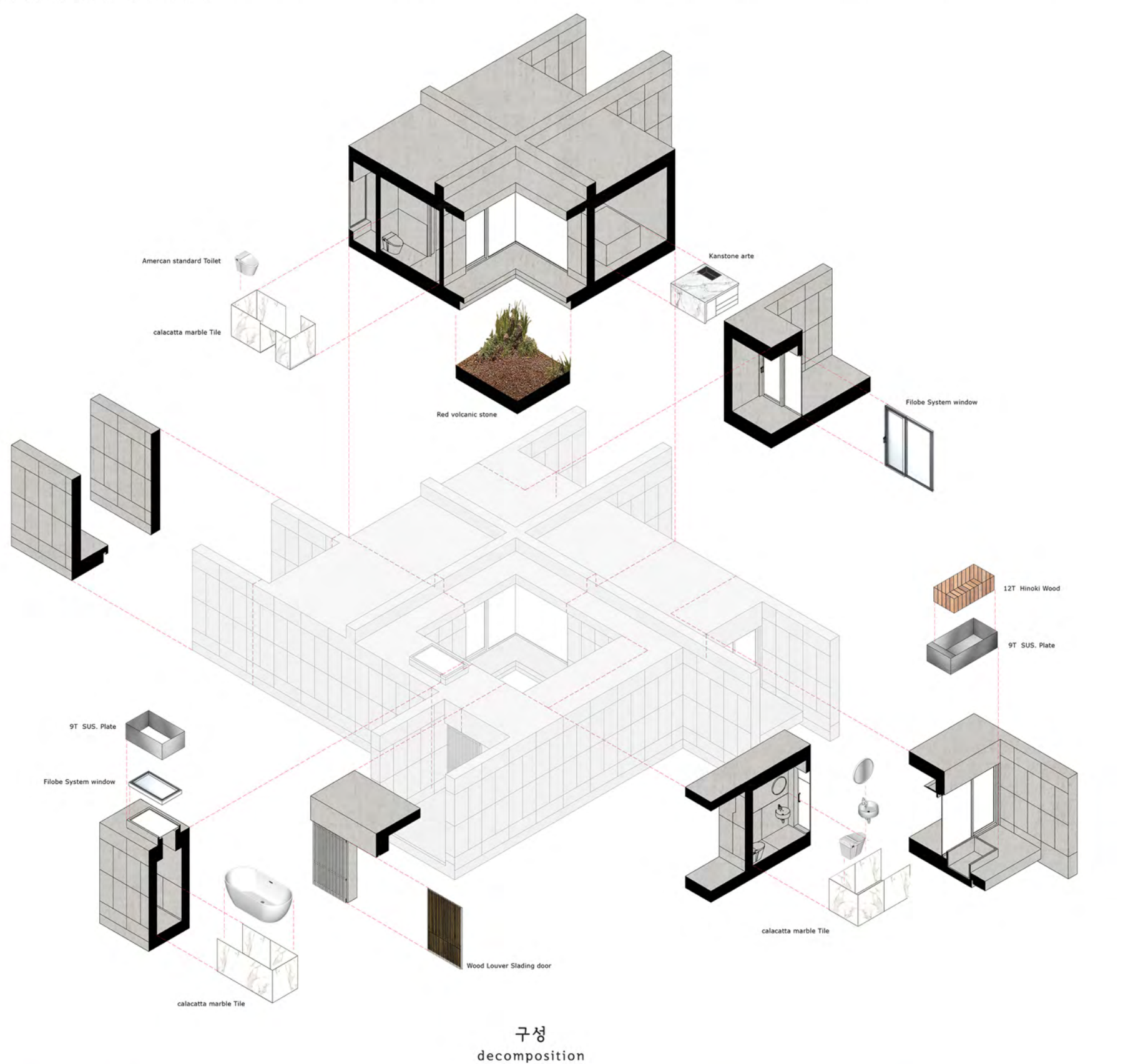
진 시간이 흘러 건축이 이 장소에서 일탈하게 자연 속으로 스며들기 바라고 일상은 단순한 공간 속에 연결된 각각의 작은 외부공간으로 확장 되길 바란다. 또한 언젠가는 나뉘는 불온 중정으로 나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계절을, 하늘을, 별들을, 제주를 즐기길 바란다.



1층 평면도



주단면도



구성 decomposition

